

缺 典 의 補 裨

—湖南滌暑紀行의 淺吟—

柳 永 博
(서울대학교 교수)

韓末에 刊出된 『湖南誌』(第一卷)에 보면 이 地方의 山河風物, 自然과 人文이 可謂 禮嘆할만한 곳이라고 하였기에 언젠가는 學的 側面에서 注意하여 살피고자 마음을 정한바 오래되었다. 特히 東學革命의 발상지인 井邑으로 關心이 더 가는 것은 勿論이고 또 하나는 단풍으로 이름이 나 있는 內藏山이 絶景이기 때문이거니와 『士尙文民力農』하는 이 고장에 古典籍이 傳해오는데 많으리라고 믿어 오는데에도 理由가 또 있는 것이다. 今年 여름에는 「士尙文」하였다는 井邑地方을 中心으로 古典籍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古典籍을 찾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고서는 그다지 흔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틈틈이 메모하여 둔 다시말하면 古書發見에 관한 手帖을 지니고 初伏에 서울을 떠났다. 나그네 行랑에는 六堂의 『朝鮮遊覽歌』를 넣고 나와 車中에서 읽으니

寒碧堂四時佳興 風流어셔노
萬景臺나를줄라 詩畵호라네
悲歡이저라코나 當年金山寺
興廢를알리로다 箕準城저기

金萬頃넓은물에 솟한穀産을
한입에섭어뵈는 群山을거쳐
邊山の月明庵에 落照를보고
禪雲山차저가자 多栢矣필제

서리새內藏山은 비단이곱다
느진봄無等山은 철죽이타네
赤壁의七月望에 美人도보고
松廣寺새벽鍾에 古佛을붓세

서울을 아침 9時10분에 떠나 2時42분에 井邑驛에 닿았다. 驛頭 근방에 초라한 다방에 들러 行랑에 들어있는 手帖을 꺼내 들고 行先을 궁리하였다. 秋收節에 콩과 감을 그리고 봄철에 고사리며 여러 土産物을 정성스러히 보내주신 그 분을 찾아 人事하자면 七寶로 가야 하겠는데 古典籍發見을 위한 手帖에는 井州邑 新景洞이

記入되어 있다. 무더운 다방 한구석에 앉은 선풍기가 힘없이 들고 손님이라고는 나 한사람 밖에 없어, 카운터에 앉아 있는 女人은 아마도 마담하는 사람일지 분명한데 무던히 지루한 단조로운 분위기 속에 뻘하니만을 건너다 보다가 나 또한 그 女人을 마주 쳐다보니, 민망한 표정이 되어 저울앞으로 가더니 공연스러히 자기 머리를 매만적 거린다.

밖으로 나오자 暴陽이 내려 쪼이는 거리에 때문에 酒幕집 포장이 伏中 더위에 더욱 짜증스러워 보였고 달리는 택시가 접근해와도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슬렁 행길을 건너 주인을 찾아가는 시골 개가 밭살머리스럽게도 보인다.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 밀집도자를 하나 사서 쓰고 갈까해서 가게를 기웃거리려도 주인은 보이지 않고 먼지에 찌른 오징어 몇마리가 철사줄에 매달려 있는데 파리들만이 극성대고 있다.

伏날 더위속에 묻고 또 묻어 手帖에 들어 있는 新景洞을 찾았다. 그 집은 시골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개와집으로 배추밭 머리에 시원한 샘이 있어, 목을 추기니 한결 伏더위를 견딜 것 같았다.

이때가 하오 4時, 좀더 있다가 해가 기울무렵 서늘한 기운이 일기시작할 때에 作業은 하기로 하고 그동안 마루끝에 땀을 시키기로 하였다. 미처 여물지 않은 매미가 근처 산에서 어설피 울고 이따금 밭도랑의 따거운 열기를 몰아오는 바람이 답답하기에 퇴뜰에 내려섰다. 나는 지금부터 오래 전에 잠시 이곳 井邑을 무더운 伏中에 다니 간 일이 있었다. 기차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그때에도 오늘날만큼 감나무 그늘이 좋은 뒤 안 물막에 서서 이웃집 넓은 채전을 건너다 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넓은 채전이 있는 그집(지금 기억에 倭式建物인상 실다)에서 풍금소리와 함께 「아 세월은 잘간다. 아이 아이」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지금도 音樂은 ABC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때 들을 때 무척 잘 부르는 노래였다고 생각한다. 채전밭 이랑에 즐지어 늘어선 옥수수 잎사귀가 가끔 불어 오는 바람결에 사각거리고 계속 그 노래는 풍금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폭양이 내려 쪼이는 오후 四圍가 더위에 눌

러 고즈넉한데 그 노래 소리는 무던히 내 마음을 感傷스러히 한바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은 말없이 흘러서 27년. 나는 다시 이 여름에 井州邑 한곳에 더위를 식히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 노래소리의 主人公을 물을 길은 없으나, 실령 물었다손치드라도 뒤라서 27個星霜 지난 일을 알라마는 세삼 나그네의 哀傷같은 心情에서 그때를 回想케 된다.

더위를 식히려 퇴뜰에 서서 近三十年前의 한가닥 回想에 잠겼다가 夕陽무렵 古典籍을 발굴하는 作業을 시작하였지만, 成果는 期待를 벗어나고 말았다. 大略적 어보던 그 目錄은 다음과 같다.

- 朝鮮八道 1冊
- 東國黨論(筆寫本) 1冊
- 通鑑 1冊
- 東覽錄 1冊
- 筆帖(丙午三月) 1冊
- 韻考 1冊
- 史要聚選 1冊
- 五倫行實圖 3冊
- 魚鴈集(己卯二月十四日) 1冊
- 簡牘 1冊
- 喪祭禮抄目 1冊
- 文字類輯目錄(辛丑季春完山新刊) 1冊
- 兒戲價覽 1冊
- 書院關係資料 1冊
- 昭租冊(乙巳) 1冊
- 其他 15種

모두 30餘種의 古書를 찾아 냈다. 이 가운데 가장 내가 깊이 關心을 가지게 된 冊은 「書院關係資料」와 「昭租冊」이다. 이 두가지 資料는 文獻의 價値가 매우 큰 것으로 地方書院研究에 貴重한 資料이며 또한 地方財政史究明에 至極히 큰 文獻으로서 높이 評價되는 史料이다.

手帖에 다음 찾아 갈곳은 井邑郡 內藏面 琴朋里 大司洞으로 되어있다. 이곳은 井州邑內에서 十五里許에 있다. 大暑날 나는 井州邑內에서 하오 7時頃에 內藏寺행 소형버스에 탔다. 內藏面사무소앞에서 차를 내리기까지는 時間으로는 얼마되지 않으나 途中 車속에서 겪은 여러가지 일들은 못내 잊을 수가 없을것 같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골버스의 風情이라할까 아무튼 시골 사람들의 꾸밈없이 소박한 사정들을 충분히 알수가 있었다.

「아이고 벌써 들어가시요! 입주(막걸리) 한잔 하십시오. 어메 이것이 다무어시다요. 장(市場)을 술찬이 많이 보였구만이라우.」

「아니여, 내일 내장에 있는 논 지심조께 벨라고 무엇쯤 샅께. 이 더위에 말이어 그양 아무께나 할 수 있당가. 아까 삼발실 등현이라고 장에서 한잔 힘써. 많이 먹어야 맛이당가. 앙그리여!」

이때에 한 여인네가 점을 한보따리 이고 버스안을 들여다 보면서

「아이고 어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탕대여. 기사양반(이곳에서는 운전수를 기사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차 언제 뜨요? 나 짐하나 저기가서 더 가져 올것이 있는디라우. 금방 안뜨지라우. 이집좀 쪼께 보아 주시요잉.」

이렇게 시골버스 정류장의 와락찌근한 소란속에 이윽고 버스는 떠났다. 차속에는 대대만원이다, 승사람들은 그야말로 발 붙일곳조차 없어 아우성이고 이구석 저구석에서 무슨 소리인가 제각기 떠들어대는데 어느 사이 버스는 읍내를 버서나서 山間 논밭을 자우로 바라보며 석양역에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을 그런대로 속력있게 달리었다.

「이양반좀봐, 어찌서 남의 발을 붙봐!」

한 여인네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말을 받아, 어느 남자의 말은

「헐수 있으요. 사람이 요렇게 꼭찬 거 안보요.」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어찌서 이렇게 비빔대여, 어메 남으 치메 베께지네 요보시요. 치메 베께진당게 그러네.」

이때에 차중은 웃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한참 웃고 떠드는데 버스는 이런 사람들의 고향과 웃음과 짜증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달리기만 한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हां다. 너무 우서버렇게 뱃창시가 아프네. 치메가 베께진다고라우. 그것은 다정헌게 나나(나누워)입을라고 그런 것이요.」

이말이 나오자 버스안은 다시 한번 더 폭소가 터지고 말았다. 이렇게 웃다가 보니 버스가 어느 정류소에 다았다. 차장이

「소재지 내리시요!」

하고 외친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나도 내리는데 일추의 여지 없는 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간해서 빠져 내리기가 힘들어

「죄송합니다. 저좀 내리겠습니다.」

하니

「이 양반은 서울양반인제네, 여소 쪼끔씩 비켜드려. 아마 소재지에 붙일이 있으신감만.」

「소재지」라 부르는 것은 井邑경찰서 內藏面 支署를 그렇게 부르는상 싫다. 버스안의 어느 농민의 말대로

나는 우선 지서에 들어가 大司洞의 아무게氏를 찾아 가려던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친절한 안내를 해주어 나는 수월하게 찾고자 하는 집을 찾아 냈다.

古典籍을 찾아 내는 作業은 大暑 다음날 아침 일찌기 시작하여 400餘種目的 古書를 살피 보았다. 그가운데 때락 書籍目錄을 밝혀 보면 아래와 같다.

朝鮮簞獻寶鑑 粟谷全書 寒暄剖銀 竹谷集 滄洛風雅 孟子朱喜集註序記 附釋音禮記註疏 考巖院誌 組綱目 自警編 河西集 晦齋集 朱書要類 朱子語類 蠶先生續錄 性理大全 精選東萊先生傳(東萊博識) 歷代名臣言行錄 奎章全韻 湖南倡義同事錄 周易傳笈大全 盧沙集 宋子大全 家禮增解 於子集 靜菴集 梅下遺稿 石農集 華西雅言 梅軒宣記 三山言記 喪禮傳要 短禮問解 本朝歷代 并溪集 浪谷實記

大司洞에서 發見한 400餘種目的 冊은 상당한 成果라고 자부하면서 書誌的인 側面에서 版本學上 많은 關心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내 分野에서 크게 研究에 도움되는 것은 個人的 文集이다. 莫大한 數量의 文集은 내가 지금까지 古典籍을 發見한 그 어느 때 보다는도 一時에 大量 찾아낸 경우가 된다. 이 많은

19面에서 계속

수행할 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設計하는 첫 段階를 이미 밟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圖書館이 부단하고 계속적인 시스템 分析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司書에게 보다 더 큰 責任이 있는 것은 시스템 綜合이다 특히, 圖書館運營에 있어서의 知的入力の 형태와 種類를 設計함에 있어서 그렇다. 이는 司書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할 分野이며, 다른 아닌 司書가 專門家가 되어야 할 領域이다.

要約하건데, 시스템 分析은 組織的인 常識 이상의 것이 아니며, 問題解決을 위한 한 組織的인 接近이다. 그리고 實業界에서 다년간 利用되어 온 經營工學的 道具와 技法의 應用이다. 이들 道具와 技法은 圖書館界에서 그다지 利用되어 오지 않았는데, 그 理由는 주로 司書들이 이들에 대하여 充分한 접촉을 가지지 못한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圖書館 作業의 複雜性이 加重됨에 따라, 司書들이 이들 道具와 技法을 習得하고 이들을 應用하는 데 필요한 技術을 發展시키는 일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스템 分析의 應用은 바로 日常의 善良한 管理의 一部分인 것이다.

<이 글은 Special Libraries의 V. 58 n.2(1967. 2.) pp 87-90에 실린 Edythe Moore의 "Systems Analysis: An Overview"를 번역한 것이다.>

古書를 整理하여 具體的인 目錄을 作成하자면 當分간의 時日이 필요하다.

이번에 意外에도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므로 山寺에 들러 쉬기로 함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平素에 존경하는 道德庵住持스님을 찾기로 하였다. 大司洞을 떠나 內藏寺로 向한 것이 7월23일이었다. 이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아가는 人波가 밀려들고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山寺로 가는 길은 먼지가 안개마냥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을 이루고 있었다. 저녁무렵 道德庵에 당도하여 맑고 시원한 푸른 계곡물에 몸을 씻으니 날아갈듯 상쾌하여 나혼자서 이번 湖南古典籍滌暑紀行을 음미하다 보니 이미 날은 어둑발이 들었다. 山속 깊은 계곡에는 都市보다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밤이 일찍 온다. 이곳 內藏山은 雄博한 맛은 없어도 山勢가 秀麗하여 四時 부드러운 淨光이 돈다. 고단하여 일찍이 僮房에 눕자, 열사흘 달빛이 窓門에 새어 들어 나그네의 思念은 太古를 넘나들어 끊임이 없다. 道德庵 골짜기를 내리비치는 저 맑은 달빛도 千秋의 興亡事를 제알고 있지 못할것이면 그 아득한 일을 누가 물을 것인가!

8面에서 계속

○ 指導內容과 學年과의 關係

主 題	學 年					
	1	2	3	4	5	6
(1) 學校 圖書館의 概要	○	→	○	→		
(2) 圖書 및 圖書館의 歷史와 現狀					◎	→
(3) 圖書館道德과 讀書衛生	◎	→				
(4) 圖書의 構成과 取扱法	○	→	◎	→		
(5) 圖書의 選擇	○	→	◎	→		
(6) 分類와 配列	○	→	◎	→		
(7) 圖書의 目錄			◎	◎		
(8) 辭典·事典·索引類의 利用			◎	◎		
(9) 年鑑·統計類의 利用			○	◎		
(10) 雜誌·新聞類의 利用	○	→			◎	
(11) 인포메이션 파일의 利用			○	◎		
(12) 視聽覺資料의 取扱과 利用	○	→			◎	
(13) 讀書法	○	→			◎	
(14) 參考書目 만들기와 노트하는 法			○	◎		
(15) 校外的 讀書施設·文化施設			○	◎		

備考 ◎標는 指導該當學年을 나타내며, ○標는 初步的인 指導가 可能한 學年을 나타냄.